

“여권 빅텐트론·한덕수 출마론 실현 가능성 없어”

전남일보-KLJC 대선 후보 공동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해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 명문학교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여권에서 일고 있는 빅텐트론이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행 출마론은 모두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 일답.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3~4년 동안을 살펴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인데 그것도 정책이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극한 대립이 있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빠져 있다.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멸돼 가는 군 단위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젊은 세대는 교육 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다. 당장 학교 광역화를 시작해야 된다. 소규모 학교들을 모아 큰 기숙사 학교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숙사 학교들을 지역 명문고로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

“교육시설 재구성, 소멸지역 배치”
“이재명과 1대1 승부 자신 있어”
“국민연금 조정·대출금리 안정화”

인구가 다시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교육 시설을 재구성해 인구 소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한덕수 대행이 실제 출마하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고건, 반기문 등 훌륭한 관료 출신의 정치인들도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결국 뛰어들지 못했다. 그 분들의 실력이나 업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 자잘한 논란들을 넘어서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호사가들이 말을 많이 하고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구도로 짜여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 구도가 된다면 보수

는 이미 탄핵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신망을 상당히 잃었다. 그리고 2연속 탄핵이다. 이길 방법이 없다. 하지만 다른 대립 구도를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거이고 이준석이 미래인 것은 명확하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놓고 봐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 등이 남아 있다. 낡은 이념적 대립 구도만 아니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은.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본질은 일반 대중의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봉급은 늘지 않는데 봉급을 받으면 먼저 세금 내고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낸다.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다. 여야의 아합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은 조정돼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을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

△빅텐트론과 세대 교체론에 대한 의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은.

-빅텐트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호사자들의 이야기일 뿐 현장에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대 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30대에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등 40대

총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의 지도자는 이제 젊어져야 된다. 대한민국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또 어려운 선거를 이겨보고 정책적으로도 토론 자리에 많이 나가고, 준비돼 있는 40대 후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FC, 26일 조선대서 ACLE 8강전 단체 응원전

광주e스포츠경기장서 실황 중계



창단 이래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4강에 도전하는 광주FC를 위한 단체 응원전이 열린다.

광주FC는 26일 오전 1시30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 e스포츠경기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8강전 단체관람 응원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응원전은 현지에 직접 응원하러 가지 못한 광주 시민과 팬들이 모여 구단의 ACLE 8강 도전을 응원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영화관 단체응원을 추진키로 하고

수요 조사에 나섰으나, 함께 응원하고 싶다는 시민과 팬들의 규모가 500여명이 넘어서자 1000명 수용이 가능한 광주e스포츠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광주FC 관계자는 “ACLE 8강 진출은 구단과 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늦은 밤 시간임에도 축구에 대한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FC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대회 8강까지 진출했다. 구단은 이번 ACLE 대회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히 호흡하며, 광주의 축구 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무등산 평촌마을 ‘지오빌리지’ 지정

광주광역시시는 23일 무등산 평촌마을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Geo-Village)’로 지정하고, ‘생태관광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무등산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담양·하순의 지질명소 24개소, 역사문화명소 43개소 등 다양한 지질명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오빌리지’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협약식에는 정현운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과 이은석 무등산 평촌마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무등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평촌(坪村)마을은 동림, 우성, 담안, 닭피 등 4개 마을로 형성된 아담하고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으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국립공원마을로도 지정됐다.

광주광역시와 평촌마을은 이번 지오빌리지 지정과 협력 협약을 통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상이 기자

전남도 ‘대선공약 대응 전 부서 TF’ 운영

김 지사, 국회·정당에 정책 제안
“지역 현안 공약화·이행에 총력”

전라남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당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윤후덕(정책본부장)·김영진(정무전략본부장) 국회의원, 유종일 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 등 정당의 대선공약 관련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AI·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또한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재난 분야 전남도의 현안사업이 추가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보다 전략적인 공약 건의활동을 펼치기 위해 ‘대선공약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15개 실국장이 참여하며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정책 분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선거 기간 공약 반영 활동은 물론 대선 이후 공약별 이행계획 수립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까지 새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번 대선을 통해 실질적 국가 성장 전략에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 마한문화 대표유적 국가사적 지정 예고

영암 시종 고분군… 5개 고분 위치
국가유산청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전라남도는 23일 전남 마한문화의 대표 유적인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1986년 도 지정 기념물 이후 2018년부터 마한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전남도와 영암군이 거둔 값진 성과다.

사적지정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대형 고분군으로,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1기 ‘내동리 쌍무덤’ 4기 등 총 5개의 고분으로 구성됐다. 당시 마한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 축조기술 및 유물들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 특유의 토기, 현지화한 외래계 유물, 청자잔,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 등이 있다.

마한 세력이 백제·가야·중국·왜·동남아시아 등과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영암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은 1986년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전남도가 2018년부터 ‘마한 복원 및 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오지현 기자